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224호 (2010년 10월 첫째 주)

연구기획조정실 · 관광지식정보

[국토해양부] 레저용 경항공기 국산화 개발 착수.....	3
[한국관광공사] 국경절연휴, 약 5만 8천여명의 중국인 방한할 것으로 예측.....	3
[한국관광공사] 레일크루즈 ‘해랑’ 일본이 인정한 최고의 한국 명품여행상품 선정.....	5
[한국항공공사] 한국항공공사 항공보안교육센터 ICAO 인증 받아.....	6
[제주관광공사] 2010년 외래관광객 월(月) 입도객, 2006년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	6
[서울특별시] ‘집창촌’ 청량리 일대, 동북권 랜드마크 탈바꿈	7
[부산광역시] 동남권 신공항의 접근성 문제 말끔히 해소!	9
[부산광역시] 2010 부산비엔날레, 다양한 관람서비스 제공.....	9
[광주광역시] 광주시 2011년 '국비 1조 3,818억원' 확보.....	11
[광주광역시] 문화기업 지원 제도 정비, 기업 적극 유치	12
[대전광역시] 대전시 ‘엑스포 재창조’ 방안 구체적 검토 착수	13
[대전광역시] 대전시, 대덕특구에 올레길 조성키로...	14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 활성화 대책위원회 첫 출범	14
[경기도] 그 섬에 가면... 보물찾기 즐거워.....	15
[충청남도] 개장 9일만에 100만 관람객 돌파	17
[전라북도] 전북관광 활성화에 전국 여행블로거 참여.....	18
[전라남도] 화순 쌍산의소,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	19
[전라남도] 남도경관 10경 선정...대표브랜드로 육성한다.....	19
[전라남도] F1대회 연간 7천억원 경제파급효과 기대.....	20
[경상남도] 백의종군로 관광상품화 방향 모색	21
[경상남도] 로봇랜드 조성 내년 도비 350억 편성 검토	22
[제주특별자치도] 이달중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광단지 지정 고시 계획.....	23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UAE, 2018년까지 관광관련 프로젝트에 2,340억불 투자 계획.....	23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러시아 관광시장 40%이상 확대.....	24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바트화 강제로 태국 해외여행 호조 전망.....	24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미국내 홍콩 관광청의 캠페인 사례	25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카지노로 관광산업 성장	25

[국토해양부] 레저용 경항공기 국산화 개발 착수

- 항공레저 수요 증가... 가격경쟁력 확보해 수출도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레저용 경항공기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목적 2인승 경항공기 국산화 개발 사업에 총 209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9월 착수하여 2014년 8월 완료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는 향후 10년간 항공기 판매대수의 50% 이상을 경항공기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항공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내적으로도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레저용 경항공기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나, 전적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 경량급항공기 수 : 총 674대(2인승 경항공기 44대, 초경량비행장치 630대)

이번 경항공기 개발에는 복합재료(composite metal)를 사용하여 기체를 경량화하고, 조종실 비행계기장비도 국내 IT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장비로 국산화할 예정이다.

육지 뿐만아니라 강이나 호수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수륙양용으로 개발하고, 안전성 확보와 해외 수출을 위하여 설계 및 제작 과정에 대한 품질검사도 강화하여 형식증명과 제작증명도 취득토록 할 예정이다.

동 경항공기 개발에 테크항공, 퍼스텍(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국대 등 총 13개 기관에서 약 160명이 참여하는 등 항공 인력의 고용 창출과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경항공기의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경항공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제작 후 예상판매 가격을 외국 제품(약 1억5천만원)에 비해 저렴한 약 1억원 내외로 책정하여, 항공레저의 초기 단계인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차세대 항공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해 나감으로써 항공사고 예방과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담당 : 항공산업과 전재우(02-2669-6495) | 등록일 : 2010.09.28)

[한국관광공사] 국경절연휴, 약 5만 8천여명의 중국인 방한할 것으로 예측

- 관광공사, 국경절 특수 중국인 관광객 위한 다양한 이벤트 준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3명 중 1명은 일본인으로 여전히 일본은 제 1의 방한시장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런 통계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2000년 1-8월 방한 외국인 중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5%, 반면 중국인은 겨우 9%였다. 10년이 지난 올해 동기간 통계를 살펴보면 일본인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34%를 차지했고, 중국인은 22%로 증가했다. 중국인의 방한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올해 들어 방한 중국인 관광객수는 45% 증가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1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전체 방한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기간이다. 국경적은 중국 설 '춘지에(春

節)’와 함께 중국의 양대 연휴라 할 수 있지만, ‘춘지에’ 기간에는 한국처럼 고향에서 일가친지와 지내는 풍속이 있어 그렇지 않은 국경절 연휴야말로 중국인들의 여행특수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국경절 연휴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중국인 유치를 위한 판촉활동에 돌입하였다. 한국 역시 지자체, 관광업계 및 쇼핑·유통업계 모두 ‘큰손’으로 등극한 중국인 관광객 맞이 준비에 분주하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업계 모니터링과 최근 방한 중국인 증가추세 분석을 통해 올해 국경절 연휴 7일간 방한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약 30% 증가한 5만 8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공사 역시 큰 손님맞이 준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중국의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연휴기간 방한하는 중국인 관광객 중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특별한 축하 파티를 열어줄 계획이다. 인천공항 도착당일이 생일인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생일케이크와 기념사진, 축하선물을 전달하고, 소속된 여행단체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생일을 맞이한 중국인이 공항의 이벤트 홍보요원에게 신분증으로 생일임을 간단히 증명해 보이면 된다. 오는 9월 30일에는 이벤트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인천 공항을 찾아 생일 축하 이벤트를 함께 한다. 동시에 각 지역 국제공항 및 연안여객터미널에 중국인 관광객 환영 현수막을 부착하여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관광객 필수 쇼핑지인 명동에서는 중국은련(銀聯)카드와 공동으로 방문의해 기념 특별할인 캠페인도 시행한다. 명동입구에 대형아치와 플래카드 및 가로등 배너를 설치하여 중국관광객 환영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번 할인 행사에는 백화점, 면세점, 이마트 등 총 1300여개 점포가 참여하여 해외여행 시 싹쓸이쇼핑으로 유명한 중국관광객들에게 쇼핑목적지로서의 한국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현지에서도 한국여행을 홍보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다. 관광공사는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중국인 방한 개별비자 완화조치와 연계한 방한 개별여행 홍보 및 관련 여행상품 판촉활동에 주력해오고 있는데, 이번 국경절 연휴를 맞이해서는 중국 젊은이 계층 방한 유치를 위한 한국자유여행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9월 한 달간 비자 완화를 홍보하는 문구와 함께 국내여행처럼 손쉽게 자유롭게 한국여행을 즐기라는 메시지의 광고를 중국 대도시의 유명신문, 라디오방송, 여행사홈페이지 등에 광고하고 있다.

또한,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공동으로 중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 ‘공동구매 이벤트’도 실시한다. 중국 각 지역 주요여행사가 추천하는 한국자유여행 상품 구매인원이 2010명에 이르면, 구매자 전원은 상품가의 5-10%에 이르는 금액이 충전된 티머니카드를 증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방한 여행상품 판매 증대 및 외국인들의 국내소비 촉진을 위하여 고안된 특별 이벤트이다.

이러한 ‘한국자유여행’을 홍보하는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활동을 진행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중국인 개별여행객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 유명 여행잡지 ‘Voyage(新旅行)’는 중국인 독자와 기자들의 투표를 통하여 한국을 ‘2010년 자유여행 목적지’로 선정하기도 했다.

관광공사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방한여행 홍보를 통해 최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중국인 유치 공세에 대응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개별여행객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관광공사, 담당 : 중국팀 박정화(02-729-9361) | 등록일 : 2010.09.27)

[한국관광공사] 레일크루즈 ‘해랑’ 일본이 인정한 최고의 한국 명품여행상품 선정

- Tour of the Year 실행위원회 주최 ‘2010 올해의 최고 여행상품’ 대상 수상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한국의 고급호텔식 열차인 레일크루즈 ‘해랑’ 방한여행상품이 일본 Tour of the Year 실행위원회가 주최하는 ‘2010 올해의 최고여행(Tour of the Year)’의 해외 패키지여행부문 대상(그랑프리)과 최고의 영예인 국토교통성 대신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번 최고상을 수상한 일본여행사는 (주)월드항공서비스로, 한국여행상품이 ‘올해의 최고여행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our of the Year 실행위원회가 주최하고, 일본정부 국토교통성, 관광청, 일본여행업협회 등이 후원하는 ‘Tour of the Year’는 올해 17회째를 맞이하는 여행부문의 권위 있는 상이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실시된 모집형 기획여행상품들의 응모를 받아, 해외여행 3개 부문 및 국내여행 1개 부문의 대상(그랑프리)을 수여한다. 해외여행부문은 패키지여행부문, 시장확대공헌부문, 목적지개발부문 등의 분야별 그랑프리를 선정하고, 그 중 가장 우수한 부문을 선정하여 최고영예인 국토교통성 대신상을 수여하는데, ‘해랑’이 패키지여행부문과 국토교통성 대신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해랑’은 관광공사가 고부가가치 명품 관광상품개발을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사장 허준영) 및 코레일관광개발(사장 길기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품이다. 동 상품은 2009년 하반기 처음 출시되어 출시 직후 98명의 일본관광객이 이용하였고, 2010년에는 상반기에만 197명이 넘는 일본인이 이용하였다.

해랑은 수원화성을 비롯해 순천, 통영, 경주, 추암, 태백 등 지방을 둘러보는 5박6일의 일정의 상품으로 가격은 ₩238,000 ~ ₩378,000(원화 ₩3,332,000 ~ ₩5,292,000/ 환율 100엔=1400기준)에 이르며, 일반 방한여행상품가격의 4~6배에 달하는 고가이다.

관광공사 도쿄지사에서는 한국여행상품의 고품격화 및 지방연계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고급호텔식 열차인 ‘해랑’을 이용한 방한상품의 출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2008년부터 마켓조사 실시, 업계대상 설명회, 일본주요언론사 사전취재, 타겟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모객광고 등 체계적 마케팅활동을 집중 전개하여 왔다.

이번 ‘올해의 최고여행상’ 수상은 철도를 이용한 본격적인 한국관광상품이라는 점과 중저가 중심의 근거리시장에서의 고부가가치 여행상품 개발 노력, 체계적인 마케팅활동 전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관광공사, 담당 : 일본팀 박성웅(02-729-9376) | 등록일 : 2010.09.27)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교육센터 ICAO 인증 받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는 한국공항공사의 항공보안교육센터가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항공보안훈련센터(ASTC*)로 최근 ('10.9.13) 공식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 ASTC : Aviation Security Training Center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ASTC 인증이 아·태지역 국가의 항공보안 관련자를 대상으로 ICAO가 인정하는 보안관련 국제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역내 항공보안 교육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위상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 항공보안 관련자의 해외교육(연간 60여명)을 국내에서 실시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교육훈련비 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또한, ASTC를 통해 국제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아·태지역 및 개발도상국의 항공보안 검색 기술과 교육지원, 항공보안 역량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국제 민간항공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항공사는 내년 2월중에 김포국제공항에 위치한 항공보안 교육센터에서 ICAO 사무총장, 국제 항공보안 교관·전문가를 초청하여 ASTC 인증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며, 동시에 아·태지역 항공보안전문가를 대상으로 '항공보안 감독관과정'을 개설하는 등 항공보안 교육기관으로서의 항공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ICAO는 항공보안 국제표준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권역별로 ASTC를 인증·운영중*에 있다.

(한국공항공사, 담당 : 양승의(02-2660-2114) | 등록일 : 2010.09.28)

[제주관광공사] 2010년 외래관광객 월(月) 입도객, 2006년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

- 동 기간 내국인은 35.3% 증가한 반면, 외래관광객은 88.2% 증가

제주관광공사에서는 매월 분석하여 배포하고 있는 「외래관광객 동향보고서」에서, 2009년 8월에 기록했던 월 입도 외래관광객수 최고기록(77,325명)을 2010년 5월과 7월에 연이어 경신한데 이어, 2010년 8월에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며 또다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10월에 기록한 최고치인 50,862명에 비해 88.2%가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내국인은 35.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방한 외래관광객 기록을 보면, 2001년과 2003년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성수기인 10월에 가장 높은 기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제주인 경우에도 특이한 경우였던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10월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에, 다가오는 10월 입도 외래관광객 전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담당 : 마케팅팀 오창현(064-740-6041) | 등록일 : 2010.09.26)

[서울특별시] '집창촌' 청량리 일대, 동북권 랜드마크 탈바꿈

- 서울시, 「청량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30일(목) 결정·고시
- 청량리 민자역사와 연계한 높이 200m 이하, 54층 규모의 랜드마크타워
- 중산층이하 주거안정 고려해 장기전세주택 등 총2,036세대 공급
- 약 1만㎡ 공원 및 광장, 먹고 즐기고 소비하는 원스톱 문화시설 설치
- 청량리 민자역사-지하철역-버스환승센터와 문화시설 보행통로로 연결
- 집창촌 관통하는 2차도로 → 6차로 확장, 2011년 5월 완료

수십여 년 간 서울의 대표적 집창촌, 속칭 '청량리588' 로 알려져 온 청량리 지역 일대가 2014년까지 주거·업무·문화·숙박 등이 어우러진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내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에 주거복합단지 건축을 골자로 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30일(목)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3년 청량리지역을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수년에 걸친 집창촌 및 노점상 밀집지역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조정 끝에 이번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게 됐다. 이 일대는 서울의 5대 부도심 중 하나로써 서울시는 지난 1994년 청량리역 일대를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불량한 환경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

특히, 기존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22개 지구로 분할되어있던 청량리 구역을 4개 지구로 통합해 구역별로 단일 사업단위에 의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집창촌 정비 해결에 대한 기쁨이 마련되어 청량리지역 개발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촉진계획에 따르면 청량리 일대는 민자역사와 연계한 복합시설 건설과 장기전세주택 등 총 2,036세대 공급 공원, 광장 등 휴게공간과 문화명소 조성 에코브릿지 등 보행자 중심 보행동선 조성 2014년까지 청량리주변 도로개선을 완료해 동북생활권의 중심지로 조성된다.

<청량리 민자역사와 연계한 높이 200m이하, 54층 규모의 랜드마크타워>

청량리역을 중심으로는 지난 8월 18일 준공된 청량리 민자역사와 연계한 최고 높이 200m이하, 54층 규모의 랜드마크타워가 들어선다. 판매·업무·숙박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시설이 들어서고, 저층부는 판매시설 특화단지로 민자역사와 연결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부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히, 랜드마크타워에는 우리시의 주요 시책인 관광기능 지원 차원에서 295실(31,600㎡)규모의 호텔이 입지할 계획이다.

주변에는 주거타워(5개동), 왕산로변의 문화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복합용도빌딩이 설치된다.

<중산층이하 주거안정 고려해 장기전세주택 등 총2,036세대 공급>

5개동에 들어서는 주거타워에는 총2,036세대를 공급한다. 이중 장기전세주택을 147세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전체의 55%인 1,126세대를 공급하여 중산층 이하의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약 1만㎡ 공원 및 광장, 먹고 즐기고 소비하는 원스톱 문화시설 설치>

청량리 로터리에 설치되는 문화시설에는 모든 세대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연면적 13,500㎡의 문화시설이 설치된다. '참여+즐길거리+먹을거리+소비'의 원스톱

생활(one stop lifestyle)이 가능한 문화와 예술의 장으로 도시공간을 재편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명소가 될 것이다.

청량리구역에는 총9,958.1㎡의 공원(4개소)및 광장(1개소)을 배치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도심 속의 자연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옥상정원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휴게공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1층의 중앙광장은 만남의 장,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벤트의 장으로 활용돼 시민휴식과 문화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청량리 민자역사-지하철역-버스환승센터와 문화시설 보행통로로 연결〉

청량리 민자역사, 지하철 청량리역, 청량리 버스환승센터 등과 단지 내 건축물의 각 층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행통로를 조성했다. 지난 8월18일 준공된 청량리 민자역사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선상광장까지 직접 연결시켰으며, 내부광장, 옥상정원, 판매시설 등 서로 접근이 편리하도록 각 층에 보행데크를 설치하였다.

특히 보행이 단절된 답십리길에 에코브릿지를 연결하여 답십리길 건너편까지 자연스러운 보행 흐름을 유도했다. 청량리 버스환승센터와는 청량리구역의 내부광장에서 바로 연결되어 시민들이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 편의를 제공했다.

〈집창촌 관통하는 2차도로 → 6차로 확장, 2011년 5월 완료〉

서울시는 청량리지구의 사업추진을 촉진하고, 열악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총 1,0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집창촌을 관통하는 10m 폭원의 ‘답십리길-롯데백화점간 도로’를 32m(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중이며,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해 2011년 5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하수박사이설 공사 중인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 개선사업’에는 325억 원을 투자해 2014년까지 굴다리 폭원 및 높이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배봉로와 답십리길 연결 고가도로인 ‘전농동 588~배봉로간 고가도로’와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에 445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완료 예정이다.

교통시설 개선이 모두 완료되는 2014년도에는 접근경로가 다양화되고, 교통량이 분산돼 청량리 일대의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리라 전망된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과 함께 이미 준공된 청량리 민자역사와 추진 계획 승인된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내 전농구역, 전농12구역, 용두구역 등을 비롯한 주변의 개발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사업을 본격 추진해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담당 : 재정비과 김영호(02-2171-2699) | 등록일 : 2010.09.29)

[부산광역시] 동남권 신공항의 접근성 문제 말끔히 해소!

- 거가대로 12월 개통으로 부산~거제간 통행거리가 140km에서 60km 짧아지고, 소요시간도 2시간10분에서 50분 단축

오는 12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이하 거가대로) 완공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었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접근성 논란이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거가대로 개통으로 부산~거제간 통행거리 단축(140km→60km)과 더불어, 소요시간도 단축(2시간10분→50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덕도는 이제 섬이 아닌 명실상부한 남해안권 내륙 교통관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 교통망은 △삼랑진~부산신항을 연결하는 신항배후철도(2011년, 38.8km), △부전~마산 복선전철(2016년, 32.6km), △마창진~거제간 연육교[일명 이순신대교](2018년, 25.6Km), △부산 경전철 사상~가덕선(2016년 목표, 24.2km), △부산~울산고속도로에서 시작해 경남 김해시 대동면~한림면~진례면을 거쳐 진해시 응동의 부산신항 배후도로와 이어지는 외곽순환 고속도로(2015년, 63.06km), △부전역~가덕신공항 자기부상열차(32km, 17분), △해상교통(위그선) 연결 등으로 더 이상 ‘섬’이 아닌 남해안권 대표하는 ‘사통팔달 요지’로서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가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거가대로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희리에서 부산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까지 총 8.2km 구간을 해저와 해상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조 9000억원(VAT포함)이며, 현재 공정율은 약 94%로 올해 12월 9일 개통예정이다.

거가대로 구간 중 부산 가덕도와 중죽도, 대죽도 사이 3.7km 구간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는 해저침매터널로 건설되고 나머지 구간은 사장교로 시공되었다. 침매함체 1개는 길이 180m, 너비 26.5m, 높이 9.75m, 무게 4만5천톤 규모의 왕복 4차선 터널구조물로, 철근 2,700톤(30평 아파트 950세대 분량), 콘크리트 4만톤(30평 아파트 460세대 분량)이 소요되었으며, 바닷물에 의한 부식과 침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18개의 침매함체 연결이 지난 9월 13일 완료되었다.

(부산광역시, 담당 : 교통정책과(051-888-7064) | 등록일 : 2010.09.27)

[부산광역시] 2010 부산비엔날레, 다양한 관람서비스 제공

-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비글호의 부산비엔날레 탐험’이라는 교육용 워크북 개발 제공
-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평일·일요일 3회, 금·토요일 5회 실시)
- 10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시립미술관 등에서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일반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과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관람객들의 참여와 반응이 뜨겁다.

조직위는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난해하고 생소한 영역으로 남아있는 현대미술과 비엔날레

라는 전시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감상 포인트를 제공하여 관객 친화적인 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는데, 개막 후 2주일이 지난 지금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조직위는 이번 전시를 위해 타겟별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대미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비글호의 부산비엔날레 탐험’이라는 교육용 워크북을 개발하여 학생 단체 관람시 제공하고 있다.

‘비글호의 부산비엔날레 탐험’은 조직위와 (사)문화예술인적자원개발센터가 2010부산비엔날레 전시관람을 위해 특별 개발한 관람지원용 워크북으로 2010부산비엔날레의 전시주제와 출품작품에 대한 해설과 작품의 관람 포인트 등을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와 캐릭터 등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관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개막 후 1주일동안 약 2,000여명이 워크북을 활용하여 전시를 관람하였으며, 단체 관람객이 집중된 지난 9월 18일에도 혼잡하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아닌 워크북을 들고 집중력 있게 전시를 관람하는 색다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지난 9월 16일 학생들과 함께 전시 관람을 했던 황경희(49세, 파견교사)씨는 “부산비엔날레 워크북이 전시 관람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관람 집중력 향상과 작품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향후 전시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겠다.”며 교육프로그램을 반겼다. 조직위는 이와 같이 관람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반응을 받기며, 단체 관람신청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전시관람에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도슨트 프로그램과 작가와의 만남 등에 대한 문의와 제공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평일·일요일 3회 금·토요일 5회 실시되는 도슨트 프로그램은 정규시간 외에 별도의 요청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며,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개최되는 작가와의 만남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도슨트(docent) :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

조직위는 2010부산비엔날레에서 시도한 다양한 관람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성공적이라 평가하며, 더 많은 관람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다양한 관람객 참여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과의 일상적 소통을 바라는 2010부산비엔날레는 9월 11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요트경기장, 광안리해수욕장, 부산문화회관, 부산시청전시실, 금련산갤러리 등지에서 개최되며, 총 23개국 252명 338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부산광역시, 담당 : 문화예술과(051-888-3465) | 등록일 : 2010.10.01)

[광주광역시] 광주시 2011년 '국비 1조 3,818억원' 확보

- R&D 등 미래성장사업 26건 1,419억원, 문화중심도시조성 30건 887억원

-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데 최우선 투자

광주시는 오는 10월1일 정부(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지원액은 총 119건 1조 3,81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신규사업은 25건 943억원이고 계속사업은 94건 1조 2,875억원으로, 이는 2010년 국비 확보액 141건 1조 2,444억원 대비 1,374억원(11%)이 증가한 금액이다.

▶ '11 국비지원요청 : 133건 1조 6,089억원

광주시의 이러한 성과는 민선5기 광주시장으로 당선된 강운태 시장의 『시민이 행복한 창조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력 확충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아래 당선자 시절인 지난 6월부터 중앙부처 장·차관과 실·국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예산 설명활동을 전개함과 더불어, 국회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수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인재 Pool을 활용하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력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 중앙부처 방문활동 (5회), 국회 여·야 국회의의원 정책간담회(5회)

11년 반영된 주요 신규사업으로 광주시의 미래산업과 직결되는 R&D 등 관련인프라구축 사업비로 광주연구개발 특구육성(50억원), 차세대 플라스틱 태양전기기술개발 및 연구기반구축(45억원),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육성(40억원), High-Tech Mold마케팅 허브구축(10억원), 적외선 광학렌즈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10억원) 등이며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운영(10억원), 투자진흥지구 기업유치 및 지원(10억원), 낙후된 송암산단을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2억원) 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소로서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 주요 신규사업 반영 내역 → 25건 943억원

'11년 반영된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광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339억원), 본덕~임곡간 49호선 개설(206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100억원), 퇴행성관절 전문병원 건립(85억원), CGI센터건립(70억원), 광주디자인비엔날레(20억원), 광주비엔날레(15억원) 나노융합 상용화 플랫폼 촉진활용(7억원) 등 94건 1조 2,875억원이다

▶ 주요 계속사업 반영 내역 → 94건 1조 2,875억원

광주시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내년도 국비지원요청 주요사업들이 국회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한 푼도 삭감되지 않도록 지켜나가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가 또는 증액 반영할 사업들에 대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각 정당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추가반영사업 : 폐기물전처리시설설치(100억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42억원), 광주교도소 진입도로개설(300억원) 등

▶ 증액반영사업 : CGI센터 장비구축(50억원), 아시아문화투자조합운영(40억원), 진곡산단 진입도로개설(450억원) 등

특히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과 간부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를 수시 방문하여 적극적인 설명활동을 전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담당 : 예산담당관실(062-316-2430) | 등록일 : 2010.09.28)

[광주광역시] 문화기업 지원 제도 정비, 기업 적극 유치

- 10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지원 위한 시세감면조례개정안 시행
- 영화·영상콘텐츠 분야 글로벌기업 4개와 MOU체결
- 3개 권역 투자진흥지구지정 절차 추진

광주시는 문화로 밥먹고 사는 문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이점을 최대한 살려 문화관련 업체 지원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고 문화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먼저, 10월1일부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 9월15일 시의회 제1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감면받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15년간 재산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구세감면조례안도 9월28일 행정안전부에 허가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어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조만간 완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옛 도청 주변 문화전당권역과 송암동 CGI센터권역, 양동 금호생명빌딩 등 3개 권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9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 올해 안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은 광주시의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기업유치도 가시화되고 있다.

영화 및 영상 콘텐츠 분야의 후반제작 전문업체인 (주)디지털아이디어와 (주)모팩 스튜디오, 입체전환제작 전문업체인 (주)지프럼, 세계적인 2D·3D 디자인과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선도기업인 (주)오토데스크 등 4개 기업과 광주시가 9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밖에도 영상 및 방송콘텐츠분야의 대형 문화기업체와 유치를 협의하는 등 광주시의 문화산업 육성 정책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장학기 문화산업과장은 “광주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다양한 이점이 있는 광주로 많은 문화기업체가 오기 바란다” 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담당 : 문화예술산업과(062-613-2480) | 등록일 : 2010.09.30)

[대전광역시] 대전시 '엑스포 재창조' 방안 구체적 검토 착수

- 염시장 "엑스포일대 첨단문화산업, 제2 한류진원지로 육성할 것"

- 26일 휴일반납 엑스포과학공원 15개 전시관 등 현장점검

지역 최대현안사업중 하나인 '엑스포 재창조 방안' 과 관련, 대전시가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26일 "엑스포과학공원은 지난 93년 개관당시 최첨단 영상콘텐츠와 디자인을 겸비한 영구건축물로서, 활용가능한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얼마든지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 고 전제하고 "엑스포와 대전컨벤션센터 등을 운영하게 될 도시마케팅공사(가칭)가 설립되면, 엑스포 재창조사업이 더욱 구체화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염시장은 이날 오전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김인홍 일자리특보 등 시 관계자와 함께 2시간여 동안 엑스포과학공원내 15개 전시관을 일일이 방문하고 시설전반에 대한 운영현황과 시설물 노후도 등을 현장점검하는 한편, 오찬 간담회를 통해 향후 활용계획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염시장은 엑스포과학공원내 각종 시설활용계획과 관련, "교통안전체험센터, 자기부상열차구간 연장 개통, 첨단과학관 조성 등 민선3기때 정부예산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완료됐고, 민선4기때 추진됐던 사업중 몇가지 사업들이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며

▲ADD 국방과학기술체험관의 경우 우주탐험관 건물(부지 2,400평/76억원 투자)을 리모델링해 오는 11월부터 본격 추진이 예상되고, ▲한화의 '첨단과학기술 융합 식물공장' 제안사업의 경우 재생조형관을 리모델링해 건립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KOTREX 활용 다목적 국제전시관 건립사업의 경우 최근 KORTA사장과 원칙적 합의를 이루고 부지매입조건 등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염시장은 또 민선5기 출범후 재개하는 사업가운데 ▲저탄소녹색성장 체험전시관(부지 4,000평 5층규모)의 경우 기존 에너지관 철거 및 신규 전시체험관 건립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과 원칙적 합의후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며, ▲제2 자연사박물관 ▲ KAIST 로봇전시체험관 ▲KISTI(키스티) 디지털 도서관 및 슈퍼컴퓨터 센터 조성사업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시장은 "이같은 제안사업들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HD드라마타운과 영상특수효과 타운, 그리고 오는 11월 개관예정인 CT센터와 함께 무역전시관의 전시기능 확충, 대전컨벤션센터 인근의 특급호텔 유치건립 등을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겠다" 고 말하고 "엑스포과학공원이 첨단문화산업의 메카로써 제2의 한류열풍의 진원지이자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엑스포재창조사업을 구체화 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도시마케팅공사 설립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엑스포 재창조 기본계획을 수립, 내년 2월부터 마스터플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과학공원 부지의 용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밟게 된다.

(대전광역시, 담당 : 공보관실 이종익(042-600-3045) | 등록일 : 2010.09.27)

[대전광역시] 대전시, 대덕특구에 올레길 조성키로...

대전광역시에서는 대덕연구단지특구내 주요 산·공원·산책로를 연결하여 등산, 레저, 자연 학습 등의 공간제공을 위해 대덕특구 올레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덕특구 올레길은 대덕연구단지내 위치한 우성이산, 매봉공원, 성두산공원, 신성공원 등산로와 탄동천길등 산책로를 연결하여 2개코스 20.20km로 조성할 계획이다.

1코스(매봉·우성이산길)는 엑스포과학공원-성두산-화암4가-대덕대뫼산-매봉공원-교육과학연구원-엑스포과학공원 구간으로 연장이 10.2km이고, 제2코스(신성·성두산길)는 중앙과학관-성두산공원-탄동천-신성공원-충대농대-궁동공원 구간으로 연장은 10.00km이며 소요시간은 코스별3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덕특구 올레길에는 안내판, 이정표, 평의자, 소규모 자연학습장 등이 설치되고 단절된 등산로 구간은 연결하는 등의 사업이 추진되며 2011년 상반기중으로 조성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대덕특구 올레길이 조성되면 많은 시민이 엑스포과학공원, 중앙과학관,대덕특구 연구소와 주요 산·공원을 연결한 올레길을 이용 할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의 등산레저, 보건휴양,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 담당 : 푸른도시과 정진석(042-600-3632) | 등록일 : 2010.09.30)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 활성화 대책위원회 첫 출범

이광재 도지사가 지난 9월 2일 업무복귀와 함께 약속한 「알펜시아 리조트 활성화 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10월 1일(금) 개최 한다

도는 그동안 최대 지역개발사업이면서 최대 현안이기도 한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에 경제·관광분야 전문가들로 대책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대책위원회는 2011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리조트 제반여건 분석을 통한 리조트 활성화 및 운영체제 개선분양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해법을 제시하게 된다.

이 같은 대책위 출범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분양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알펜시아 리조트는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7월말 그랜드오픈 이후 한달만에 2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브랜드 가치가 점차 높아지는 등 상승추세에 있는 만큼, 대책위 출범은 리조트 분양과 운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강원도, 담당 : 예산담당관실(033-249-4155) | 등록일 : 2010.10.01)

[경기도] 그 섬에 가면... 보물찾기 즐거워

- 경기도 소재 4개 섬, 문화보물섬 탈바꿈
- 경기 문화보물섬 프로젝트 결실
- 대학생 탐사원정대, 두 달간의 열띤 보물찾기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열정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펼쳐온 ‘경기 문화보물섬’ 이 결실을 맺고 있다.

‘경기 문화보물섬’은 경기 소재 섬 국화도, 입파도, 풍도, 육도를 잇는 참신한 문화 기획 프로젝트로 사전 선발된 대학생 탐사원정대를 주체로 실시됐다. 이들은 지난 여름방학을 맞아 각 섬의 역사와 문화보물을 찾아 기록하는 ‘문화보물섬 탐사단’, ‘문화보물지도 제작’, 섬의 환경을 문화적으로 개선하는 ‘상상미술단’ 활동을 벌였고, 4개의 섬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꼭꼭 숨겨진 문화보물을 찾아라!>

그동안 ‘문화보물섬 탐사원정대’는 각 섬의 문화자원을 탐사하고 카페, 블로그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7월 초부터 팀을 나누어 국화도, 풍도를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매주 섬을 탐사하며 각종 문화자원과 지역주민의 모습을 ‘경기 문화보물섬’ 공식 카페를 통해 전해왔다.

‘문화보물섬 탐사단’의 역사 찾기와 문화자원 조사는 ‘문화보물지도 제작팀’의 손을 거쳐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보물지도’로 제작됐다. 이에 기초하여 미술관련 전공자로 구성된 ‘상상미술단’은 섬에 버려진 폐자원을 활용해 관리가 미흡한 문화자원 곳곳의 환경을 미화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쳐 주민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들의 활동 성과는 경기 문화보물섬의 공식 카페 (cafe.naver.com/4treasu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숨겨진 재미가 있다! 알쏭달쏭 국화도>

국화도팀 상상미술단은 ‘숨겨진 재미가 있다! 알쏭달쏭 국화도’라는 콘셉트로 몇 년 동안 쓰이지 않고 버려졌던 공용 건물을 재구성하여 국화도의 숨겨진 문화보물 전체를 볼 수 있는 미니어처 입체지도를 제작했다. 일명 ‘안녕하세요 국화도See’는 버려진 스티로폼으로 섬의 전체 모양을 잡고, 폐어망과 소라껍데기, 병뚜껑, 솔방울 등으로 꾸며냈다.

이는 일종의 국화도 관광홍보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을 초입에 위치해 국화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직접 국화도에 자리 잡은 문화보물을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관광 루트를 정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낸다. 이밖에도 ‘무인 여객선 매표소’와 ‘체험어장’ 미화활동 등은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섬 풍도>

500년 은행나무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섬 풍도. 풍도팀 상상미술단은 탐사원정대와 머리를 맞대고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섬 갤러리’라는 주제로 풍도 곳곳을 즐겁게 누빌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와 관광코스를 만들어 냈다.

은행나무 정자 코스, 사각돌 해안가 코스, 바다 위 학교 코스로 이루어진 풍도 관광코스에는 ‘버려진 상으로 만든 은행나무 표지판’, ‘사각 수조와 사각돌로 만든 물고기 바위그림’,

‘바다 위 학교, 풍도분교 돌담 벽화’ 등이 제작되어 있다. 또 풍도 마을주민의 이야기 장소인 총무님 댁 앞 ‘풍도카페’와 선착장 계단의 ‘물고기 그림’, 사각돌 해안가에 ‘야생화 바람개비’, 낡은 부표를 활용한 ‘부표 의자’ 등은 풍도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섬에 흩어진 문화보물을 하나로… 육도 감싸기〉

여름방학을 활용한 대학생 ‘탐사원정대’의 마지막 탐사지 육도에서는 육도의 문화보물 ‘몽돌’을 주제로 탐사 및 제작을 진행했다. 조그만 섬 여섯 개가 모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 ‘육(六)도’에서는 본섬 안에 흩어진 문화보물인 몽돌과 주민을 하나로 감싸자는 취지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제작된 결과물로는 육도지도 및 벽화, 물고기 모양의 명패발, 마을 안내 표지판 등이 있다.

〈떠나자! 문화보물섬으로!〉

탐사원정대가 처음 네 개의 섬을 방문했을 당시, 섬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환경에 비해 문화적 측면에서 ‘물’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었다. 게다가 지속적인 문화자원 관리와 관광 홍보의 미흡으로 현존하는 많은 자원이 빛을 보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섬을 찾는 관광객도 낚시나 야생화 탐험을 즐기는 일부 마니아층이 전부였다. 현재까지도 이는 민박과 어업을 병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에게 턱없이 부족한 수요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경기도 소재 네 개의 섬만이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섬에 거주하는 주민이 문화적 혜택과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지난 6월부터 ‘경기 문화보물섬 사업’을 추진해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탐사와 자원관리를 통해 경기 소재 4개 섬이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문화보물섬으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업명 : “문화가 흐르는 경기도 문화보물섬”
- 대상 : 서해 4개 섬 (국화도, 입파도, 풍도, 육도)
- 사업기간 : 2010년 6월 ~ 8월 (약 2개월간 진행)
- 주최 : 경기도 관광진흥과
- 주관 : 상상미술단, 문화보물섬 탐사원정대

(경기도, 담당 : 관광진흥과(031-8008-8541) | 등록일 : 2010.09.27)

[충청남도] 개장 9일만에 100만 관람객 돌파

- 1일 평균 10만명 이상 입장..일요일 늦은 오후 달성할 듯
- 연일 구름인파...운영 틀 잡히며 행사장 혼잡도는 되레 완화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아시아 대표 역사문화축제」 2010 세계대백제전에 대한 관람객 입장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2010세계대백제전이 개장 9일 만인 26일 오후 유·무료 포함 100만 관람객 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종 관람객 유치 목표는 개장 30일간 내·외국인 포함 260만명이다.

2010 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회가 잠정 집계한 관람객 현황에 따르면 개장 8일차를 소화한 26일 폐장 시간 현재 93만8,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1만7,000명 꼴. 이 가운데 유료 입장객은 26만6,000여명이며, 무료 행사장 입장객은 이보다 2.52배인 67만1,000여명. 최근 한가위 연휴가 지나면서 관람객 급증 현상이 나타나, 1일 14만~16만여명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종전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주말인 지난 25일 오후 들어서는 단체 관람객들이 전날에 비해 크게 증가, 관람객 유입을 견인하며 오후 5시 현재까지만 해도 13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이후 「서동 선화공주 퍼레이드」 등 야간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한 대전권 외지 유입관광객, 영호남권의 후발 한가위 귀경객에, 여기에 이날 개막한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참가인파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크게 늘었다고 조직위는 밝혔다. 전날 대형 버스 유입이 총 46대에 불과했으나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만도 부여 137대, 공주 535대가 유입된 것으로 조직위 교통상황실은 집계했다. 특히 공주는 이날 도민체육대회 참가 체육인들도 자연스럽게 ‘가을축제’를 함께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충청향우회 소속 경기도 안양충청산악회 회원 120여명도 대형 차량 4대를 이용해 방문한 것을 비롯해 사이버 카페 ‘한류열풍사랑’ 소속 회원 30여명도 사비궁을 돌아보며 대백제전의 의미를 새겼다. 더욱이 이날도 수상공연을 비롯한 야간 프로그램이 다수 있어 야간 공연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려들게 된다면 관람객 100만명 돌파는 결국 일요일인 26일 오후 무렵이면 이뤄지지 않을까 점쳐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축제 참가자 급증 현상은 공주 수상공연 「사마이야기」를 비롯한 「웅진성 퍼레이드」 「사비의 꽃 3D 입체영상」 등 연출력과 작품성이 돋보이면서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 따른 것. 이처럼 대규모 인파가 몰려 행사장 일부가 혼잡을 빚고는 있으나 주차장과 각 프로그램 현장마다 행사장 운영에 안정을 찾으면서 관람객 불편은 대부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여 낙화암 절경을 감상하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람객들 중에 금강 부교를 건너거나 야간 경관을 즐기는 인파도 적지않은 가운데, 「사비의 꽃 3D 입체영상」 관 등은 매회 상영때마다 조기 매진되는 사태가 빚어져 사전 관람권 배부 등 대책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행사장이 여러 곳에 분산돼 운영되는 만큼 100만 번째 입장객 등 관련 이벤트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다만 내주부터는 주중 학생 등 단체 관람객들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관람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나가기로 했다.

(충청남도, 담당 : 세계대백제전조직위 강재규(010-2231-6017) | 등록일 : 2010.09.27)

[전라북도] 전북관광 활성화에 전국 여행블로거 참여

- 블로거 25명을 초청 새만금 연계 도내 주요 관광명소 소개
- 인터넷 블로그에 전북 관광체험 게재 전국 네티즌 관심 이끌 터

전라북도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용하고 다양한 여행체험 수기를 게재하여 전국의 많은 네티즌들로 하여금 관광지에 대한 관심과 가족이나 단체의 여행지 선정에 영향력이 있는 여행블로거 기자단 회원을 초청하여 9. 28~29일(1박 2일)동안 새만금방조제 현장, 전주한옥마을 등 전북 주요 관광명소를 관광토록 하여 관광지는 물론 전북음식 등 전북에서의 관광체험에 대해 인터넷에 많은 자료를 소개 하게 하여 우리도 관광객 유치 확대에 일조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에서 여행블로거로 활발하게 활동중인 블로거기자단 25명은 첫날은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희망 아리울(새만금)의 세계 최장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새만금방조제 관람을 시작으로 “태양인 이재마”, “불멸의 이순신” 등 주요영화 촬영지이며, 민속촌 등 국내에서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는 부안영상테마파크 관람과 예로부터 한국8경으로 꼽히고 있는 내변산에 위치한 백제 무왕때 창건된 천년고찰 내소사를 관람한다.

이틀째는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전주한옥마을에서 전통문화체험의 시간을 갖고, 동편제의 본고장인 남원을 방문하여 광한루원 관람과 운봉읍 국악의 성지를 방문하여 국악공연을 관람하고 체험행사도 가질 계획이다.

이번 블로거 기자단 사전답사는 새만금방조제를 비롯한 주요 관광명소, 전북음식 등에 대한 체험수기를 인터넷 블로그에 다양하게 게재는 물론 금후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소리축제, 음식관광축제 등 각종 축제 등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초청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러한 인연이 이어져 미래 잠재적 관광객 확보와 전국에 전북관광 바로 알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금후에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전답사 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로부터 맛과 멋 그리고 소리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전라북도를 “5,000만의 마음의 고향”으로 만들어 나가 향후 녹색관광시대를 활짝 펼쳐 갈 관광전북으로 새롭게 부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이다.

(전라북도, 담당 : 관광산업과 공병원(063-280-3393) | 등록일 : 2010.09.28)

[전라남도] 화순 쌍산의소,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

-한말 의병사 연구 귀중한 자료...문화재청 3만여㎡ 추가

1900년대 대한제국기 의병들이 전투를 준비하던 장소인 화순 ‘쌍산의소(雙山義所)’ 주변 일대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이 일부 추가로 확대 지정됐다.

전라남도는 화순의 사적 제485호 ‘쌍산의소’ 주변 37필지 3만1천259㎡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는 통보를 문화재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화순 이양면 증리에 위치한 쌍산의소는 1900년대 초 대한제국기에 의병들이 일제에 대해 전투를 준비하던 장소로 당시 호남의병 뿐 아니라 한말 의병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무기 및 탄약을 공급하던 무기제작소와 유황의 저장고인 유황굴, 의병 방어시설인 의병성의 흔적을 포함해 의병이 거처하던 막사터·훈련장·최초 모의 장소였던 호남창의소 본부 가옥터 등이 잘 남아있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8월 3일 이 일대 8만7천550㎡가 사적 제485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사적 지정 당시 발굴조사 등을 바탕으로 확인된 유적의 일부만 최소한으로 지정돼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경관이 주택 등 건축행위·유구훼손 등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추가로 지정돼 ‘쌍산의소’ 사적 보호를 위한 완충공간을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관리단체인 화순군과 협조해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 담당 : 공보관실(061-286-2053) | 등록일 : 2010.09.25)

[전라남도] 남도경관 10경 선정...대표브랜드로 육성한다

-전남도, 32개소 추천받아 10월 말 최종 확정...관광·지역홍보 활용

전라남도가 지역의 대표적인 경관 10곳을 선정, 이를 ‘남도경관 10경’으로 상징·특성화해 외래관광객 유치에 위한 관광자원 및 지역홍보 등 이미지 향상을 위해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타 지역의 경우 관동팔경, 관서팔경, 지리산 10경, 제주 10경 등 경관이 수려한 곳을 대표경관으로 정해 관광 및 지역이미지 향상 등을 위해 활용해온 점을 감안, 도내 우수한 경관자원을 집중 부각해 관광객을 유치해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남도경관 10경 선정 기준은 예전부터 자연경관이 수려해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최근 인공적으로 조성된 아름다운 전경, 일정 주기별로 해당경관이 순환되는 곳 등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 대표성, 지속성, 타 지역과의 경쟁력, 관광자원으로 가치성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하기로 했다.

추진절차는 시·군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 서면 및 현장평가 결과와 네티즌들의 인터넷 의견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금까지 시·군으로부터 14개 시군 32개소의 후보지 추천을 받아 설명자료 및 사진 등에 대해 보완 및 추천 후보지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 중이다.

앞으로 전라남도공공디자인위원회 도시경관분과위원 14명과 관광, 언론, 사진분야 등 각계 전문가

20인 정도로 평가판을 구성해 서면평가에서 2배수 내외로 압축해 현장평가와 관광포털 사이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네티즌 의견조사 결과 등을 반영, 10월 말 최종적으로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남도경관 10경에 선정되면 11월 초 도지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지역홍보를 위해 중앙 언론인, 관광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관광코스 개발 및 관광객 유치, 주변경관 개선 사업비등을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기석 전남도 공공디자인과장은 “남도경관 10경 선정을 통해 공식적인 전남도의 대표 경관 브랜드를 창출해나가겠다” 며 “특히 남도경관 10경을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10경을 담은 사진, 자료 등을 관광 및 투자유치 등 도정 홍보물 이미지에 활용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담당 : 공보관실(061-286-2053) | 등록일 : 2010.09.26)

[전라남도] F1대회 연간 7천억원 경제파급효과 기대

-박종문 F1조직위 사무총장, 한국스포츠외교포럼서 관광효과 극대화 강조

전라남도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선도사업으로 역점 추진해온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향후 7년간 연평균 7천억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스포츠외교포럼에서 박종문 F1대회조직이원회 사무총장은 ‘2010 F1 코리아그랑프리외교포럼’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의 경우 이미 뒤쳐진 2차산업보다는 잘 보존된 천혜의 자연환경 등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며 “관광산업중 성장잠재력이 큰 스포츠산업 특히 F1대회를 통해 말레이시아, 바레인처럼 관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이어 “월드컵의 경우 2조원을 들여 전국 10개 경기장을 건설해 1회 개최하는데 그쳤지만 F1은 3천억원을 들여 1개의 경주장을 건설, 7년 이상 매년 개최하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갖고 있다” 며 “또한 경주장 시설물 자체가 트랙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와 같이 각종 대회 유치, 행사 개최, 임대 등을 통해 경주장을 연간 200일 이상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 밝혔다.

또 “대회 개최를 통해 전남의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인지도가 향상되고 관광객이 증가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며 “특히 88 올림픽과 2002 월드컵에 이어 세계3대 스포츠를 모두 유치함으로써 국가 위상 제고는 물론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과 부품산업 등 연관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해선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의 분석 결과 향후 7년동안 연간 생산유발효과 2천579억원, 소득 유발효과 62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229억원, 간접세 유발효과 129억원, 고용 유발효과 2천57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경주장 사후활용에 대해선 “F3, AFOS, GP2, MotoGP, CJ 슈퍼레이스 등 국내외 경주대회와 신차발표회, 콘서트, 컨퍼런스, 기업 세미나/연수회 등 각종 이벤트, 자동차(타이어·부품) 성능시험, 동호회, 트랙데이 등 임대 및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유동인구 및 지역 경제효과를 창출해나갈 것” 이라며 “경주장 주변에는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호텔,

리조트, 카지노, 요트, 항공 등 연관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을 세계화할 수 있는 배후도시로 개발하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F1대회는 전 세계 200여개국 6억명이 TV시청을 하며 연매출 39억달러(2007년 기준)인 세계 최대규모의 스포츠 비즈니스 시장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대회 개최로 연 1억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대회 때마다 내국인 14만5천여명, 외국인 6만2천여명 등 총 20만8천여명의 입장객이 몰릴 것으로 추산돼 국제대회 5개(3만여명)를 개최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전라남도, 담당 : 공보관실(061-286-2053) | 등록일 : 2010.09.28)

[경상남도] 백의종군로 관광상품화 방향 모색

-경남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8일 도정회의실

-아이디어·의견 교류 통해 주요사업 성공 추진 다짐

경상남도가 백의종군로, 한산대첩길 등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상품화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경남도는 28일 오후 3시30분 도정회의실에서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 주재로 2011년 이순신 및 임진왜란 관련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역사고증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좋은 아이디어 등 자문을 통해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고 소통을 통한 의견교류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기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원광대 나종우 교수를 비롯해 한국국제대 이우상 교수, 경남발전연구원 김태영 박사, 대한적십자사경남혈액원 김기태 팀장, 전 인수위문화복지위원 박선희 대표 등 13명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주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후 전문가 검토 및 논의 순서로 진행되며 ▲백의종군로 관광명소화, 한산대첩길 관광명소화 사업 ▲이순신 정신을 이은 헌혈운동 ▲역사문화관광 아카데미 운영 ▲불멸의 이순신 1박2일 탐방운영 ▲충무공이순신 운구행렬 재현사업 등이다.

경남도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전문가 회의에서는 백의종군로 정비사업, 임진왜란 조선수군 군수품 제작 등 이순신 프로젝트 인프라·소프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면서 “2011년 추진할 사업 등을 통해 이순신 및 임진왜란 사업 홍보 및 관광상품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앞으로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도정 운영 발전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 고 말했다.

(경상남도, 담당 : 역사문화담당 정영림(055-211-4884) | 등록일 : 2010.09.27)

[경상남도] 로봇랜드 조성 내년 도비 350억 편성 검토

- 김두관 도지사 30일 창원시 업무보고서 밝혀
- 신항 북컨베이어부지~용원 연결도로 50억 반영

김두관 도지사가 로봇랜드 사업착공을 위해 2011년도 도비 부담금 3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창원시 건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노력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도지사는 30일 오후 2시 창원시청을 방문, 박완수 창원시장과 주요 기관장과 환담한 후 창원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인사말에서 “부임 이후 시군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김두관 도지사는 지방행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면서 “도민들은 지역발전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통합 창원시민 역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의 행·재정적 지원과 관심을 가져 달라” 고 말했다.

김윤수 창원 부시장은 업무보고에서 마산, 진해, 창원 균형발전 3대 프로젝트를 비롯해 마산만 워터프런트 조성, 경제자유구역청 LH공사 추진사업, 제2 안민터널 개설, 제2 봉암교 개설 등 현안사업을 보고했다.

이어 김윤수 부시장은 신항 북컨베이어부지~용원간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내년 사업비 100억원 가운데 도비 50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창원시는 특히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북·반동리 일원에 사업비 7,000억원을 투자하는 로봇랜드 조성과 관련해 사업 착공을 위해 2011년도 도비 부담금 350억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창원시는 또 예산부족으로 2011년 준공이 어려운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에 30억원의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두관 도지사는 이에 대해 “신항 북컨베이어부지~용원간 연결도로 도비 50억원과 로봇랜드 조성 도비 부담금 3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답했다.

김두관 도지사는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가 1,100억원, 경남도가 1,000억원, 국비 560억원, 민자 4,340억원 등 총 7,000억원이 투입되는 거가대교 건설 이후 가장 큰 사업” 이라면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TF팀을 구성하고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가 추천한 전문가도 동참시켜 주위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두관 도지사는 또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잘 준비해 미래성장 동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들어설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30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선거 공약사항인 창원평생학습원과 유사한 기능이 있어 실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말에서 김두관 도지사는 “통합 창원시는 108만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17개 시군은 창원시가 거대한 블랙홀이 되면서 소외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면서 “통합 창원시의 각종 모범시책을 잘 추진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고 전망했다.

김두관 도지사는 이어 “경남도와 창원시가 함께 협력과 상생을 한다면 공동 번영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경상남도, 담당 : 행정과 정국조(055-211-3213) | 등록일 : 2010.09.30)

[제주특별자치도] 이달중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광단지 지정 고시 계획

-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추진 가속도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자유치위원회에서 관광단지 지정계획(안)이 원안의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2001년도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에 7대 선도프로젝트로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2005년에 제주개발센터에서 유원지조성사업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 '08년 8월에 말레이시아 버자야사를 유치하여 9월 현재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추진중이며 공정률은 20%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관광단지로 지정하게 되면 외국인투자지역·투자진흥지구사업자에게 주어진 농지·산지조성비 및 취·등록세 등 각종 부담금·세제 인센티브 외에 전력인입비용 추가 경감이 예상된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기위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투자진흥지구 외에 이 번에 관광단지가 추가 지정되면 사실상 국내에서 적용하는 모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사업장이 되고, 앞으로 2015년까지 약 2조2천억원(1,798백만USD)을 투자하여 5성급 호텔과 레지던스호텔, 콘도미니엄, 전문병원, 카지노,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1단계 건축공사로 콘도미니엄(310세대)을 착공한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위 치 : 서귀포시 상례동 633-3 일원

면 적 : 744,205㎡

사업기간 : 2005 ~ 2015

사 업 비 : 약 2조2천억원(1,798백만USD)

시 행 자 : 버자야제주리조트(주) 응수이린(말레이시아)

도입시설 : 숙박시설, 전문병원, 카지노, 상업시설 등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 일괄처리팀(064-710-3391) | 등록일 : 2010.09.27)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UAE, 2018년까지 관광관련 프로젝트에 2,340억불 투자 계획

- 향후 8년간 약 2,340억불 규모의 관광관련 투자로 건설산업을 진흥할 계획이며, 이는 지역내 관광관련 투자계획의 86%를 차지하는 규모임. (연구기관 RNCOS 연구결과)
- 그 중 아부다비가 건설붐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됨. 아부다비는 지난 7월 총 방문객이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했으며 UAE가 9개월 연속 두자리수 성장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UAE는 경제침체기에 방문객이 감소했으나 F1과 같은 대규모 이벤트 덕택에 상황은 좋아지고 있음. 게다가 UAE는 경쟁국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 쿠웨이트 등의 투자보다 14배 이상의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Emirates24/7, 2010.9.12

(한국관광공사, 담당 : 김옥신(rosablue@mail.knto.or.kr) | 등록일 : 2010.09.27)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러시아 관광시장 40%이상 확대

- 검색 사이트 <yandex>에 2010년 8개월 동안의 관광관련 검색이 46% 증가함.
- <yandex>의 관광관련 검색 중 터키는 18.4%로 1위였고, 2위는 이집트로 16%를 차지함. 3위는 이탈리아, 그 다음은 그리그, 스페인, 태국, 튀니지, 불가리아,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이스라엘과 필란드, 중국 그리고 몬테니그로와 몰디브 순이었음.
- 올해 관광 관련 검색이 가장 많았던 달은 5월 이었으며 작년에 비해 75% 증가했음.
- 올해 8월 <yandex> 검색어 중 23%가 터키였으며 14%가 이집트관련이었음.
- 작년에 8월에 비해 올해는 러시아관련 관광이 거의 두배가 늘어났음. 모스크바 관련은 70%이상 증가했으며, 바이칼 관련은 60%증가함. 스모그와 화재로 인해 러시아 중심부와 황금고리 관련 검색은 작년대 비해 크게 줄었음.

출처 : <http://www.tourvest.ru/news/3220.html>

(한국관광공사, 담당 : 김옥신(rosablu@mail.knto.or.kr) | 등록일 : 2010.09.27)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바트화 강제로 태국 해외여행 호조 전망

- 태국 바트화 강세에 따른 해외여행비용 감소로 아웃바운드 업계가 호황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태국여행업협회(the Travel Agents Association, TTAA)는 현재의 바트화 강세 기조가 향후 3~6개월 정도 지속될 경우, 태국 아웃바운드업계는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TTAA는 바트화 강세에 따라 금년도 아웃바운드여행 성장세는 17~18%에 이를 것으로, 아웃바운드 항공좌석 판매량은 4백7십만석(이중 60% 가량이 여행용으로 추정됨)에 이를 것으로 전망. 10월 항공좌석 예약율 역시 전년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 중국, 한국 등이 가장 선호되고 있는 목적지로 전해지고 있음
- 중국 시장은 많은 수의 관광목적지와 상품 취급 여행사로 인해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목적지인 일본은 양질의 패키지 상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여행사가 높은 경쟁속에 해외여행패키지 상품의 평균 가격이 이미 5~7% 인하되었으며, 달러대 바트화 환율이 30까지 내려갈 경우, 상품가격은 평균 10% 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TTAA측은 전망
- 한편, the Association of Domestic Travel에 따르면 국내여행도 이전의 대규모 시위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국내여행상품의 호텔 가격도 상당폭 떨어지고 있으며, 종전 1박에 1만5천바트에 달하던 코 사무이 지역 한 호텔의 1박 숙박비가 1천5백바트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태국관광청은 금년도 인프라바운드 총량을 기존 9천만회에서 9천3백만회로 상향 조정했음(관광 수입목표는 4천6백억바트. 단, 2009년도 인프라바운드 총량은 8천7백만회, 수입 4천억바트였음)

출처 : 방콕포스트 2010.09.20

(한국관광공사, 담당 : 김옥신(rosablue@mail.knto.or.kr) | 등록일 : 2010.09.27)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미국내 홍콩 관광청의 캠페인 사례

- 지난 7월부터 미국 공영방송인 PBS의 "Adventure with Purpose" 프로그램에는 홍콩을 소개하는 1시간짜리 에피소드가 방송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금년 2월 홍콩의 Chinese New Year Celebrations를 시작으로 촬영되었으며, 연말까지 총 11개 에피소드가 방송될 예정
- 11개의 에피소드는 Overview, Chinese New Year, Festivals, Night and Neons, Tai Chi & Kung Fu, Green Hong Kong, Lantau Island, Dragon Boat Race, Tea Shop, Conclusion 등으로 홍콩에서 여행자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분야별로 모아 제작되었음.
- 홍콩은 이러한 홍보 프로그램의 방영을 실제 여행상품과 연결시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United Vacations는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특별히 기획한 홍콩상품을 출시하여 8월부터 판매하고 있음
- United Vacations이 판매하는 상품은 금년 8월1일부터 2011년 3월까지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는 40여개의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가격은 1500불에서 2500불 선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음.
- 홍콩 소개 프로그램의 촬영에서 방송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방송을 시작한 1개월 후에 방송내용을 체험할 수 있는 실제 여행상품이 판매를 시작한 셈임.

출처 : <http://www.discoverhongkong.com>, United Vacations 사이트 등

(한국관광공사, 담당 : 김옥신(rosablue@mail.knto.or.kr) | 등록일 : 2010.09.27)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카지노로 관광산업 성장

- 싱가포르가 지난 7월, 사상 최초로 외래관광객 1백만명을 돌파하였는데 핵심 역할은 카지노임
- DBS Group은 카지노 매출액 규모를 미화 15억불로 예측하고 있는데 리조트월드센토사(RWS)는 2분기 매출액 S\$636.5 million, 순이익 S\$300 million을 기록하였음.
- Universal Studio는 일평균 약 8천명이 입장하고 있으며 호텔 객실점유율은 70%를 나타냈음.
- 한편, 마리나베이샌즈(MBS)는 초기 영업 65일간 순이익 S\$216 million을 달성하였으며, 이 중 카지노 비중이 S\$191 million로 88.4%에 해당됨.
- 게이밍 컨설턴트 Galavis는 금년 카지노 매출액이 S\$27억불, 2011년은 30억불로 예측하고 있음. 반면, Aaron Fischer, 홍콩 소재 투자회사 아시아지부장은 싱가포르 카지노 매출액이 2011년 S\$51억달러, 2012년 65억달러로 예측하고 있음.

출처 : Agence France Presse, 2010.08.29

(한국관광공사, 담당 : 김옥신(rosablue@mail.knto.or.kr) | 등록일 : 2010.09.27)